

#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30)]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가정에 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황후 와스디가 자기의 말을 듣고 오기를 거절하므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측근에 있는 법률 문제 담당 자문관들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문관들 중 무무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스디 황후는 황제에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황제께서 다스리시는 각도의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황후가 행한 일이 제국 안의 모든 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크셀크세스 황제(아하수에로 왕)가 와스디 황후에게 오라고 명령해도

황후는 가지 않았어요' 하고 대꾸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부인들이 황후가 행한 일을 들으면

그들의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여 남편을 멸시할 것이며 남편들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를 다시는 황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국법으로 정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하며

황후의 위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황제의 칙령이 이 광대한 제국 곳곳에 발표되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

든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모든 자문관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므로

그는 무무간의 조언에 따라 각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도에 칙령을 내려

모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 1:12-2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정에 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 (1) 부인들은 자기 남편의 말을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 (2)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 (3) 오히려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 (4) 모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 건축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였습니다.

팬데믹 때 오래된 승리장로교회 건물을 수리함에 있어서  
수고하신 건축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역대하 34: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건축자들을 보내주셔서  
승리장로교회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아주 잘 수리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화를 입게 만듭니다.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은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이스라엘로 가서 문병했던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그 문병이 오히려 그에게는 치명적인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벌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그곳에 갔다가 요람 왕과 함께 예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파멸시키기 위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찾아 죽일 때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야 왕의 조카들을 만나 그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하시야 왕도 찾아내서 그 또한 죽여 버렸습니다  
(역대하 22:5-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들고 함께하게 만듦으로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화를 입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결국에 가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아닥사스다 왕)의 답장문을 보면  
그는 자기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유다 사람들에게 작업을 중단시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여  
더 이상 자기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편지가 도착하자 “르훅과 서기관 심새와 그들의 동료들은 편지를 읽어 보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권력과 힘으로 그 성의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에스라 4:21-2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겸손한 자는 사랑의 책망을 받았을 때 ....

겸손한 자는 사랑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며  
자신이 당하는 죄의 결과의 쓴맛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참고: 역대하 12:6, 현대인의 성경).

##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여행하는 동안 자기들을 인도하여  
자기들의 자녀들과 자기들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 8:1, 2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과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과  
(3)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역대하 36:15, 현대인의 성경).

## 고소, 편지, 연합 전선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크셀크세스(아하수에로) 즉위하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아르타크셀크세스(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 미드레닷, 다브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아람어로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보냈으며 그것은 읽을 때에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에스라 4:6-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연합 전선을 펴서 함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과  
또한 법적으로 우리를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대해 거짓되고  
나쁜 얘기들을 써서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목사님과 장로님들)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회에서도 목사님들끼리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사탄과 그의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 주변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그 원수들의 계획에 대해서 열번이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귀띔해 주었으므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 뒤에 집안별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상황을 살핀 뒤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렵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용감히 싸우십시오”  
(느헤미야 4:12-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사탄과 그의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떻게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님들을 전신 갑주를 입혀서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그들의 가정을 위해 용감히 싸우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 구원의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성경 에스더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

자문관인 므무간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를 다시는 황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국법으로 정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하며

황후의 위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조언을 했는데

(에스더 1:19, 현대인의 성경)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자문관들은 전국 각 도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산궁으로 불러오게 하고

그녀들을 궁녀 담당 내시인 해개에게 맡겨 그녀들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황후로 삼으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즉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2:2-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구원의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성경 에스더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에스더 1장에 나오는 3개의 잔치 중

3번째 잔치 때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도 사용하시사

결국에 가서는 와스디의 왕후의 위를

그녀보다 나은 사람인 하닷사 또는 에스더에게 준 바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들을 비웃으면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36:16, 현대인의 성경).

## 권력자에게 아부까지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이 고소장에 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 (1)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재건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악한 반역의 성”입니다,
  - (2) 만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된다면  
그 유대인들이 “일체의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므로 “황제의 세입이 크게 줄어 들 것”입니다,
  - (3) 예루살렘 성은 “옛날부터 항상 반역을 일삼고  
황제들과 지방 장관들에게 얼마나 말썽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 (4) “만일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완성되면  
폐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 그들은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아닥사스다 왕)에게 “황제 폐하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황제 폐하께 알려 드립니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에스라 4:12-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편지를 쓰거나 또는 비방이나 악담을 할 때  
자기들의 악한 목표를 이루고자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에게 아부까지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마치고 성문을 닫 다음에  
자기 동생 하나니와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임을 맡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1-2, 현대인이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그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 포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계획을 계속해서 좌절시켰습니다

(에스라 4: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만일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까지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뇌물로 매수를 당한 정부 관리들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을 막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 그 말씀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도록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도록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느헤미야 8:1-5, 현대인의 성경).

**그 말씀의 뜻의 해석을 듣고 이해할 때 울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그 말씀의 뜻의 해석을 듣고 이해할 때 울 수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느헤미야 8:7-9, 현대인의 성경).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케 하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따듯이 대하고 만족스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10:7,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감히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감히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17:10, 현대인의 성경).

## 그러한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성도님들의 죄를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참고: 에스라 10:6, 현대인의 성경).

## 그런데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수 없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종들을 보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참고: 느헤미야 9:26-28, 현대인의 성경).

##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시아 왕은  
14년 동안이나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역대하 34:3-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죽을 때까지 죄로 더럽혀진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을 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확신)을 가지고 사탄과 그의 세력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역대하 20:17, 현대인의 성경).

## 나는 지금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참고: 에스라 10:11, 현대인의 성경)

##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하고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6:36-39, 현대인의 성경).

##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울고 기도했다는 것이 놀랍고,  
이스라엘의 많은 남녀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다는 것도 놀랍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에스라의 주위에 모여서 통곡하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에스라 10:1, 현대인의 성경).

## "느헤미야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유다 백성들의 불평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불평하는 말이란 그들은 돈과 곡식이 없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로써  
자기들의 동족인 부한 유대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서 먹고 살며  
또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그 돈과 곡식에 대한 이자를 그 부한 유대 사람들에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자기들의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느헤미야가 대단히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그 자체이기보다 그 불평의 내용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대단히 화가 난 이유는  
제 생각엔 같은 유대인 동족끼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미련하게도 한인끼리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그것도 목사가) 믿지 않는 자에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와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 자신의 결점(flaw)이 들춰서 제 자신이 싫지만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12).

##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이 교회에 몰아 닥쳤을 때  
담임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하므로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각처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20:1-4, 현대인의 성경).

## 다들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때에 ...

다들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18:12-13, 현대인의 성경).

##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짓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까요?  
과연 그 원수들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였을까요?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이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은 페르시아의 키루스황제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겠소”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했을까요?  
(에스라 4: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말한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거절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는 것도  
그들이 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그들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돈을 우상화 했을 때 ...

돈을 사랑하므로 돈을 우상화 했을 때  
그 돈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돈을 우리의 패망의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27:23, 현대인의 성경).

##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선 ...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과 반드시 그들을 도우사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32:8, 현대인의 성경).

## 마음 속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대답을 ...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느헤미야 1:11, 현대인의 성경)였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황제가 자기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황제에게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2:4-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난 날에 인터넷 사역(Internet Ministry)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메신저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할 때나 또는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그들의 말에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마음 속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대답을 했었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했을 때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많은 때에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중에 잊지 못하는 기억은 제가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한국에 있는 자매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말씀 묵상을 읽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마음 속 이야기를 길게 글로 적어서 저에게 보냈을 때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그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 35-39절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때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동시에 성령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제 첫째 아기가 죽은 후  
저희 부부를 사랑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손수 볼펜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그 편지의 끝 부분에 로마서 8장 35-39절을 쓰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친 히스기야로 하여금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성공(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2:26-3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강성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망길에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26:15-16, 현대인의 성경).

##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기에 자기 목사님도 없고 자기 집(home church)과 같은 교회가 없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참고: 역대하 18:16, 현대인의 성경)

## 막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 부대 군사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막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 부대 군사들로 훈련시키시사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점점 강대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17:12-13, 현대인의 성경).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보호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에스라 8:22-23, 현대인의 성경).

## 모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다섯 번째 전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웃 나라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소문에 의하면 네가 왕이 되려고 몇몇 예언자들을 앞세워 네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갈 내용에 대한 느헤미야의 회답은 산발랏이 자신에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며 모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느헤미야 6:5-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이런 저런 말들을 지어내어 거짓 소문을 교회 안에서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교회에 불만이 있는 교인들을 충동(선동)하여 교회 안에서 소란(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21:21, 27, 31; 참고: 마태복음 5:9). 그 결과 교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며, 교회가 분쟁과 분열로 깨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 모든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모든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결코 부인들은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남편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인들은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참고: 에스더 1:16-21, 현대인의 성경).

##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쏟으면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31:21, 현대인의 성경).

## 목사님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주님의 종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5:14).

##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10:8, 13, 현대인의 성경).

## 바로 그 때 우리는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을 때

바로 그 때 우리는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요새화하고 우리 모두가 용감하고 잘 훈련된 십자가의 군인들이 되어 합니다

(참고: 역대하 14:6-8, 현대인의 성경).

## 바로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간구하면서 그 큰 난관을 당면하는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14:11, 현대인의 성경).

## 바로 그 때가 온 식구가 하나님을 돌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 하나님이 없고 식구를 가르칠 영적 지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 때에  
그 가정은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을 것이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온 식구가 하나님을 돌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역대하 15:3-5, 현대인의 성경).

##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막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지혜로운 대통령을 세워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9:8, 현대인의 성경).

##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교만해진 마음입니다.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을 우러러보게 되었을 때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병이 나으리라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2:23-2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교만해진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 범죄하는 가정의 가장(남편/아버지)에게는 ...

범죄하는 가정의 가장(남편/아버지)에게는  
반항하는 자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역대하 21:8, 현대인의 성경).

##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간 것을 보면  
그는 그에게 “진실”을 말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나쁜 일”을 예언하는 것을 듣고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변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구 쓴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혀서  
결국 그는 자기 전차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우다가 해질 무렵에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8:29-34, 현대인의 성경).  
아합 왕의 죽음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또한 그 진실된 말씀을 예언한 미가야야 말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16, 현대인의 성경).

## 본받아야 할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호람 왕은 본받아야 할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유다의 아사왕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역대하 21:12-1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참고: 고린도전서 11:1)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지  
사탄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참고: 열왕기하 18:3, 24:19, 현대인의 성경).

##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그들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여  
거룩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는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과 관리들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라는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 9: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저 같은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치리하는 장로가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 왕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는데(역대하 29:2, 현대인의 성경)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에

이방 신의 단들을 쌓고 성전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단들을 쌓았으며

힌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 채로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또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등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몹시 노하게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므낫세 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33:2-6,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는데

아들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정 반대일 수가 있을까요?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불성실한 죄인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여호람 왕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셔야 할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1:7,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

출애굽 당시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3: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비록 우리를 반대하므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 할지라도 ...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반대하므로

비웃고 조롱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므로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소”

(느헤미야 2:2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비록 우리를 반대하므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사탄은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꺾어 범죄케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도 역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본받아 악한 길을 걸었는데  
그 원인은 그의 어머니인 아달라[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로 그 어머니 이세벨의 피를 받아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다국어 성경)]가 아하시야를 꺾어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친척인 아합 집안 사람들의 가르침을 좇아  
아합 못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22:2-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탄은 우리를 꺾어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3: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범죄케 하되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고: 역대하 32:11, 현대인의 성경).

## 산발랏과 게셈의 의도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밖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지만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수리하지 못한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된 후로는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전갈을 다섯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 전갈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는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의의 목적은 사실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그들의 술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1-7, 현대인의 성경). 즉, 산발랏과 게셈의 의도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면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하게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재건 공사가 완공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전갈을 다섯 번이나 보내 만나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의 원수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기에)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을 공격하여 그로 하여금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그 교회는 목자 없는 양 같이 여기 저기 흩어져 (열왕기상 22:17; 역대하18:16)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26, 새 번역).

## 서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15:12, 현대인의 성경).

## 성가대 지휘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지도해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자기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습니다.

오래 전 다윗과 아삽 때부터 이 성가대에는 대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지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2:45-4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가대 지휘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지도해야 하며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지휘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자기들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성공”으로 포장된 “재앙”

지금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영에게 꾀를 받아서

“성공”으로 포장된 “재앙”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고: 역대하 18:21-22, 현대인의 성경)

##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과 분리시켰습니다

(느헤미야 13: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성도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통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찬  
이 최악 된 세상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하”면서  
세상적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과 “서로 결혼”하고 어울리므로  
성도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에스라 9:1-2, 11-12, 현대인의 성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마태복음 16:18)에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여라고 역사(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을 다 일으키셨습니다  
(에스라 1:1, 3, 5).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마태복음 16:18)에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성전 건축보다 성전의 정결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땅과 성전의 정결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유다 왕들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둔 성전 건물들을  
성전에 들어온 헌금으로 수리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34:8-1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전 건축보다

성전의 정결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정결 작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고린도전서 3:16)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 작업이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히브리서 9:22).

##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도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 에스라 3:6, 현대인의 성경).

##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대적하여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겠지만 ...

비록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 공사를 잠시 중단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두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에스라 5:1-2, 현대인의 성경).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대적하여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잠시 중단했던 주님의 일을 주님의 종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므로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참고: 역대하 25:16, 19-20, 현대인의 성경).

###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14:13, 현대인의 성경).

## 시편 23편 6절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심과 구원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을 묵상하면서)

## 신앙생활에 필수 과목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광야에서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 과목입니다  
(참고: 느헤미야 9:19-20,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온갖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하였던 므나셋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꺾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므나셋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역대하 33:6, 9-10, 현대인의 성경).  
므나셋세와 같은 목사 한 명이 온 교인들을 꺾어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교회가 있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목사와 그의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실 텐데 그들이 들을까요?  
거짓 목사의 거짓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은 충분히 교인들을 꺾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 아름다운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왕후 와스디도 황실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 마지막 날에 크셀크세스 황제(아하수에로 왕)는 얼큰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  
그를 시종드는 일곱 내시를 불러 왕후 와스디에게 면류관을 씌워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와스디 왕후가 아름다우므로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미모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에스더 1:9-11, 현대인의 성경).  
저는 크셀크세스 황제(아하수에로 왕)는  
“부강한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4절, 현대인의 성경)한 후에  
“잔치 마지막 날에” “얼큰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  
미모가 아름다운 자기 아내인 황후 와스디를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했다는 것을 묵상할 때  
그의 과시욕의 문제는 그는 먼저 자기 아내를 과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했어야 했는데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우선순위가 뒤바뀜)과  
술에 취해서 자기 기분이 좋다고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잔치에 모인 사람들(그들도 술에 취해 있었을 텐데)에게 자랑하고 싶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황후 와스디는 내시들의 말을 듣고 오기를 거절했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남편이 아내에게 거절을 당할 때  
크셀크세스 황제(아하수에로 왕)처럼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기 보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왜 아내가 남편의 요청을 거절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남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수모이든지 무엇인가가 그녀의 마음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무 고통 없이 무병장수하기 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라 ...

므나셋 왕은 고통을 당하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나셋은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12-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아무 고통 없이 무병장수하기 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회개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참고: 역대하 6:10, 현대인의 성경).

##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1-15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고: 역대하 6:17, 현대인의 성경).

## 어느 누가 참 목사님의 “진실”된 말을 귀담아들을까요?

다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말하는 거짓 목사들의 말 듣기를 속히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가 참 목사님의 “진실”된 말을 귀담아들을까요?

(참고: 역대하 18:27, 현대인의 성경)

## 어떻게 3시간 동안이나 ...?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채”

“그대로 서서 3시간 동안 낭독하는 여호와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말씀(느헤미야 9:1-3,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지금 내가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2)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동안이나 낭독하는 여호와와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나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3)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동안이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고백할 죄들이 많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죄들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들춰내주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죄 사함의 확신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죄 고백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혜가 저에게 계속해서 있길 기원합니다.

## 어떻게 우상을 없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왔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서 선한 일도 행했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아합 왕을 사랑하고 도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유다 땅에서 아세라 여신상을 없앴던 여호사밧 왕(역대하 19:2-3, 현대인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한  
아합 왕(열왕기상 21:26, 현대인의 성경)을 사랑하고 도운 것일까요?  
어떻게 우상을 없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왔을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6:24).

## 어려운 때일수록 ...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니 ... ㅠ  
(참고: 역대하 27:22, 현대인의 성경).

##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건강한 경계선을 두고  
거리를 뒀야 할지도 모릅니다(참고: 느헤미야 10:28-29, 현대인의 성경).

##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역대하 6:14, 현대인의 성경)

##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비결은 ...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역대하 20:18-19,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히브리서 11:6)  
보이는 것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고린도후서 5:7, 현대인의 성경).

##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기회가 됩니다(참고: 역대하 20:1-6, 현대인의 성경).

## 여러 가지 환난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에 ...

여러 가지 환난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15:6-7,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외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므로

우리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여호와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외치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7:1-3, 현대인의 성경).

##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사탄과 그의 세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고: 역대하 32:7-8, 현대인의 성경)

##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마음과 육신이 몹시 지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마음과 육신이 몹시 지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가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할 바로 그 때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느닷없이 밀어닥쳐

우리를” 공격하여 더 이상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중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느헤미야 4:10-11, 현대인의 성경).

##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없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원수)인 도비야는 제물로 바칠 곡식, 향, 성전 기구, 레위 사람과  
성가대원과 문지기에게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예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큰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야로 하여금 그 큰 방을 사용하도록 한 사람은  
바로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었는데  
그는 도비야와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한 다음 성전 기구와 제물로 바칠 곡식과 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느헤미야 13:4-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사장 엘리아십은  
이스라엘의 대적(원수)인 도비야와 관계를 끊었어야 했는데  
(또는 자기 자신을 도비야로부터 분리시켰어야 했는데)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엘리아십은 그리 못했기에 결국에 가서는  
그 “큰 방”을 도비야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적(원수)으로 하여금 그 큰 방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주님의 종인 목사님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종을  
우리 교회 안으로 초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 사탄의 종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분노를 금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종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또한 그의 모든 물건 등을 교회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여 우리 마음과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 오직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므로 ...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을 처음 행위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17:3-4, 현대인의 성경).

## 오직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34:2, 현대인의 성경).

## 왜 그녀는 이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국무총리 하만은 모든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키기로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의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기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왕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기에 조서를 내려 그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길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위해  
은 340톤을 국고에 들여놓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손에서 인장 반지를 뽑아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은 네가 갖고 이 (유다) 민족도 네가 좋을 대로 처리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 3:6-1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왕후로 삼은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하는 에스더(2:17)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10, 20절, 현대인의 성경)과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 두 내시들의 모의를 보고(고발)한 모르드개(21-23절, 현대인의 성경)가

유다 사람임을 알았다면(3:4) 하만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뽑아 그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개는 자기 사촌인 에스더에게 그녀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을까요? (2:10, 현대인의 성경)

어릴 때부터 모르드개의 말에 순종하였던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지시대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가(20절, 현대인의 성경)

하만을 초청하여 두 번째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에스더 황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만일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하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7:2, 현대인의 성경)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 때서야 자기가 유다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제가 만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면 또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왜 그녀는 이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현대인의 성경).

에스더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 민족인 유다 사람들이

하만에게 전멸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1:36)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한 양처럼 자신의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땅히 영원히 멸망 당했어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 왜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였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참고: 역대하 24:20, 현대인의 성경).

##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힘써 ...

저 같은 목사는 저를 힘껏 지원하겠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의 지지(support)를 받아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힘써 회개운동을 해야 합니다(참고: 에스라 10:4, 현대인의 성경).

##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사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엄청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사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참고: 역대하 20:7-11; 시편 121:1-2,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3:8, 공동번역).

##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과 감화하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적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참고: 느헤미야 8:10-12, 현대인의 성경).

## 우리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아멘)으로 찬양하면서 경배하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아멘)으로 찬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복음서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생각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부모가 죽자 자기 사촌인 모르드개가

자기 딸처럼 키운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여 그녀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았습니다(에스더 2:7, 15-1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쓰심에 있어서

에스더를 왕후로 삼으시사 결국에 가서는 그녀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 장군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므로 ...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므로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여기시사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모을 것”입니다

(참고: 느헤미야 1:9, 현대인의 성경).

## 우리 주위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아닥사스다 왕)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준 편지 내용을 보면 “나는 자문관 7명과 의논한 끝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형편을 알아보려고 너를 보낸다”라는 내용과 “또 네가 바빌론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가져가거라. 너는 이 돈으로 즉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소제로 드릴 곡식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단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돈은 너와 네 동족들이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을 대로 사용하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 7:11, 14, 16-1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있다는 생각과 그들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알아서 그 돈을 사용하길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그 밖에 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관리자들에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공급해 주어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라 7:20-2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현대인의 성경).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지원해 주십니다.

##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기 위해선 ...

남쪽 유다 왕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의 군대(80만 병력)가 자기의 군대(40만 병력)보다 두 배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야 왕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기에 여로보암 왕과 그의 80만 병력이 싸워도 이기지 못할 줄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여로보암 왕이 일부 병력을 몰래 유다 병력 후방으로 보내 거기서 매복하게 하므로 유다 사람들을 앞뒤로 적에게 포위당하였었지만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아비야 왕과 유다 사람들을 도와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군을 무찌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민족이 하듯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워 수상을 섬겼지만 아비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들만 그들을 도와 하나님께 아침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지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역대하 13:1-1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 (1)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역대하 15:4,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 (2)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하나님도 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참고: 역대하 15:3-4,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주님의 길로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6:31).

##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비결은 ...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27:6).

##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했을 때

그들의 대적 자들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할 셈인가? 너희가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느냐?”하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18-1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의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31:20).

##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15:15,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경계병이 되어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임을 맡게 한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경계병을 세워  
각각 자기 초소와 자기 집안을 경계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느헤미야 7: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각자가 경계병이 되어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경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우리는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지요?  
(참고: 느헤미야 9:15-16,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성경 교사들을 많이 세워서 ...

우리는 성경 교사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참고: 역대하 17:7-9,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어떠한 반대와 대적이 있고 또한 어떠한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는(그들은) (예루살렘) 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습니다

(느헤미야 4: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케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대와 대적이 있고 또한 어떠한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는 “막아낼 힘”이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 역대하 20:12,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깊이 경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서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어려운 일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 (1)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 (2) 나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 우리는 우리의 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자기의 친척인 아합 집안 사람들의 가르침을 좇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가르침”을 좇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아하시야 왕은 아합 집안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조언을 듣고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치러갔다가 결국에 가서 그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역대하 22:4-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탄은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사탄은 양의 털을 썼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와 같은

거짓 목사들(참고: 마태복음 7:15, 새 번역)의 거짓된 가르침과 조언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거짓 목사들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참고: 디모데후서 4:3,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바른 교훈을 듣는데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야 합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2:7, 11, 17, 29; 3:13, 22,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의 크셀크세스 황제(아하수에로 왕)는

그의 모든 신하들과 고위 관리, 그리고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군 지휘관들과

각 도의 총독과 귀족들을 모두 초대해서 고박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된 잔치에서 부강한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했습니다(에스더 1: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빌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다니엘 4:30, 현대인의 성경)라고 한 말도 연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들의 공통점은 자기 나라(제국)의 영광(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과시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화려함)과 위엄을 자랑하고(뽐내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욥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들을 연합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내 마음에 과시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세운 내 교회이다’라고 착각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도 사업을 하면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신명기 8:17, 현대인의 성경)고 착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합니다(시편 49:6,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8:18,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야고보서4:16; 베드로후서2:18).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고린도전서 3:21).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해야 합니다(고린도후서12:9).

그리고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시편 44:8),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로마서15:17),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빌립보서 3:3, 현대인의 성경),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갈라디아서6:14).

## 우리는 일평생 ...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성실해야 합니다(참고: 역대하 15:17,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큰 금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17:6,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법을 거절하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고집을 피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오래 참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여러 번 주님의 법에 순종하라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9:29-3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고자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10-1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자 하기보다 ...**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자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진해서 무엇을 드려야(헌신해야) 하는지

기도해 봐야 합니다(참고: 느헤미야 10:32,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한 조서에는

“유다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가 돌아갈 때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주도록 하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은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12:35-36, 현대인의 성경).

이 두 성경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 이웃의 마음도 감동하시사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 이웃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참고: 역대하 15:8,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격려를 받아 ...

“유다 지도자들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크게 격려를 받아  
성전 공사를 잘 진척시켜 하나님과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셀크세스가 명령한 대로 성전 건축 공사를 끝마쳤” 습니다(에스라 6: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격려를 받아  
주님의 일을 잘 끝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26:4-7,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에스라 8:31,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형편없이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악을 조장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편없이 낮추실 것입니다(참고: 역대하 27:19, 현대인의 성경).

##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훌륭한 주님의 법과 규정을 주셨습니다  
(참고: 느헤미야 9:13, 현대인의 성경).

## 우리의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로 세워  
우리의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길 기원합니다(참고: 역대하 2:11-12).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소서

(참고: 역대하 6:26-27,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와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역대하 30:8, 현대인의 성경).

“음악에 능숙한 사람들”

주님께서 승리장로교회에 보내주신 “음악에 능숙한 사람들”을 통해

찬양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34:12,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16:25).

## 이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장로교회 예배당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택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주시하시고

이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7:12-15, 현대인의 성경).

##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역대하 20:15, 현대인의 성경).

## "이 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참고: 에스라 10:13, 현대인의 성경)

##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참고: 에스라 8:28; 로마서 4:25; 12:1, 현대인의 성경).

##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라고 쓴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주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하신 요한복음 6장 1-15절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two fish and five breads miracle)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현대인의 성경).

##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없었습니다(역대하21:20,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죽음을 맞이해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동요하는 사람으로 인해 ...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산발랏은

아주 격분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때 곁에 서 있던” 도비야가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느헤미야 4: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tools)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 때 교회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사람들은 충분히 아주 격분하여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산발랏과 같은 사람이 먼저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면

“그 때 곁에” 있는 도비야와 같이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동요하는 사람으로 인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룹(파벌)을 형성하고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소동을 일으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고 심수는 사모님을 생각하면 ...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누가 함께 무엇을 하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고 등등 하였다(느헤미야 3장)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고 심수는 사모님을 생각하면

그녀가 대학생 때부터 우리 곁을 떠나기까지

주님께서 그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 목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엔 배호진 목사님, 김희중 목사님, 김상대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수는 서명수 목사님이 섬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다면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 안에 한 영혼을 섬기게 하심에 있어서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누가 언제 이렇게 섬기고

“그런 다음” 또 다른 주님의 종이 언제 저렇게 섬기고 등등하게 하시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 이해가 안됩니다.

아하수어로 왕의 모든 신하들은 다 왕의 명령대로

국무총리가 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존중하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

다(에스더3:2, 현대인의 성경). 왜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그리했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모르드개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을 살해당할 위험에서 건져준 모르드개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모르드개는 아하수어로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하고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개는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모르드개는 다른 신하들의 날마다한 권면도 끝까지 거절할 정도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면서 그는 왜 자기가 유대 사람임을 밝혔을까요?

분명히 그는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는 그녀가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으면서(2:10, 현대인의 성경; 참고: 2:20)

왜 자기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유대 사람임을 밝힌 것일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개가 무사할 수 있을 것인지 보려고

그 일을 하만에게 보고했습니다(3:4, 현대인의 성경).

이 신하들의 보고는 모르드개를 위험에 빠트리는 보고라 생각합니다.

모르드개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어로 왕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에스더를 통해 황에게 보고했는데(2:21-22, 현대인의 성경)

왕의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개를 충분히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보고를

하만에게 한 것(3:4, 현대인의 성경)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구나 모르드개가 유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모르드개만 죽일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5-6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국무총리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개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든 유사람들도 전멸시키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해도 어떻게 한 사람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다 전멸시키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히틀러가 그리도 많은 유대인들 죽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32:14-17, 현대인의 성경).

##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주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죄를 갚은 후 하나님을 경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고: 느헤미야 9:2-6, 현대인의 성경).

## 인생의 쓴맛을 볼 때 ...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 지 깨닫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12:8, 현대인의 성경).

## "자기 능력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 집안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되 “자기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2:68-69,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교회 건물을 위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든 우리 각자 능력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29:11, 현대인의 성경).

##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16:9, 현대인의 성경).

##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스스로 세력이 강해지면 ...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스스로 세력이 강해지면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참고: 역대하 12:1, 현대인의 성경).

### 자진해서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며  
그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기 성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느헤미야 11: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진해서 교회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이 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부정하고 공정치 못한 재판이나 뇌물 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19:5-9, 현대인의 성경).

## 저 같은 하나님의 종(목사)은 ...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던 에스라는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 7:6, 1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 같은 하나님의 종(목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처럼 “나와” “주의 종들인” 목사님들이  
주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기도(느헤미야 1:6, 현대인의 성경)한 내용을 묵상할 때

왜 느헤미야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다(부르짖는다)라고 말한 후

주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한다고 말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때 든 생각은 저는 느헤미야처럼 “나와” “주의 종들인” 목사님들이

주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 내용을 보면 (1) 그는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고,  
(2) “우리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이 쌓여 하늘에 닿았”다고 고백했고,  
(3)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죄만 지어 왔”다고 고백했으며,  
(4) “우리의 죄 때문에” 외국 왕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오늘날까지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고,  
(5)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을 종살이하던 곳(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 거룩한 곳에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으며,  
(6) “우리는 종이었으나 주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 곳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으며,  
(7) “그러나 하나님이지어,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우리가 주를 저버리고 주의 법을 어겼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6-1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여기까지의 에스라의 회개 기도 내용을 묵상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 (1) 나는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하여 부끄러우며,
- (2) 나의 죄의 결과로 인생의 쓴 맛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미워해야 하고,
- (3)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 (4)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 (5)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또 다시 주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바벨론에 도착한 몇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아직도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로로 잡혀 오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느헤미야 1:2-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만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통해 지금 남한으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에 살면서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저는 이제 하나님께 ...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참고: 에스라 10:11, 현대인의 성경).

## 저도 사랑의 책망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책망한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하게 위해 큰 집회를 열고” 모든 유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말을 이어서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주고

또 여러분이 착취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시키도록 한 다음

자기 옷자락을 털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털털 털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군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느헤미야 5:7-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처음에는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지만

느헤미야의 말 대로 자기들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헤미야의 말 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참으로 그들을 느헤미야의 사랑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3:19).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 대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5:9, 현대인의 성경).

저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사랑의 책망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사탄이 그의 종들인 산발랏과 도비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종인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다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느헤미야는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길 기도했다(느헤미야 4:1-4, 현대인의 성경)는 것을 묵상할 때

저는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기도해야지)

그들에게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하는 말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16:8-9, 현대인의 성경).

##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정말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을 때  
“대단히 화가 나서” 그 주님의 종을 핍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16:9-10, 현대인의 성경).

##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16:12, 현대인의 성경).

## 정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느헤미야 9:22, 24, 현대인의 성경).

## 제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회개하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먼저 회개하므로 하나님께 돌아간 후 유다 백성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역대하 19:4, 현대인의 성경).  
제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회개하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후 주님께서 저에게 목양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 제가 오늘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히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생각한 다음”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소!”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6-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매우 분노하고 있었으면서도  
“신중히 생각”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인터넷 다국어 성경에 “신중히 생각”이란 단어를 통합검색을 해보니까  
잠언 20장 2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나는 경솔한 짓을 해서 후회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다국어 성경에 “경솔”이란 단어를 통합검색을 해보니까  
시편 106편 33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므로 모세가 생각 없이 경솔한 말을 하였음이라.”  
이 두 성경구절을 연합하여 묵상할 때 어떻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매우 분노하고 있었으면서도  
신중히 생각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의 어느 정도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이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대단히 화가 났어도 경솔하게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그는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참고: 느헤미야 9:25, 현대인의 성경)

## 주님, 원수들의 계획을 좌절시켜주세요.

전능하신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원수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시사

설불리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느헤미야 4:15, 현대인의 성경).

##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 찬양의 기적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성가대원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 아래 힘차게 찬송하였고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느헤미야 12:42-4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승리 성가대원들이 박덕영 전도사님의 지휘 아래  
힘차게 찬송하고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온 교우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사랑으로 어울려 즐거워하며 기뻐서 감사의 찬양의 큰 소리가

찬양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수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

찬양의 기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찬양 동역자들의 삶과 가정 안에서도  
또한 가정을 통해서도 찬양의 기적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주님께서 기름부어 택한 목사를 버리지 마시고 ...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름부어 택한 목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소서(참고: 역대하 6:42, 현대인의 성경).

##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주님의 교회의 기쁨을 튼튼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17:5, 현대인의 성경).

##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쉽게 화를 내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고: 느헤미야 9:16-17, 현대인의 성경).

##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면 세워 나아 가실수록 ...

예루살렘 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을 때에는  
더 이상 산발랏과 도비아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격분하여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을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도 협력하여 대단히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려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느헤미야 4:1, 7-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면 세워 나아 가실수록  
주님과 교회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사람들은 더욱더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여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공격을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어떤 재앙이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도와 주소서.  
주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참고: 역대하 6:28-30,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시며 또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우리를 반드시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참고: 느헤미야 9:9-10,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의 교회는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 기가 꺾였습니다(느헤미야 6:15-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리 교회의 원수들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주님이 교회와 항상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은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또 그 날에 예물과 첫 열매와 십일조를 보관하는 성전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뽑아  
각 성의 농가로 돌아다니며 율법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으로 규정한 것을 거두어  
창고에 들여놓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2:4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은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온 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참고: 느헤미야 8:1-3,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6:48).

##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한 보내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지혜 있고 솜씨가 좋으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한 보내주시길 기원합니다(참고: 역대하 2:13-14,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16:18).

##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승리장로교회의 약 43년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에스라 3:11-12, 현대인의 성경).

## 중요한 것은 고통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사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참고 역대하 33:9-13, 현대인의 성경).

##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를 끝마친 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다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별로 조직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에스라 6:16-2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끝마치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더러운 관습을 다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다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 지금 교회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요?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돈을 섬기므로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교회를 버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참고: 역대하 7:20, 현대인의 성경)

## 지금 자기 집 같은 교회(home church)가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

느헤미아가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 버릴 것이다'”  
(느헤미야 1:7-8, 현대인의 성경)라고 기도를 한 내용을 생각할 때  
저와 주님의 종들인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므로 지금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세계 각처에 흩어 버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자기 집 같은 교회(home church)가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죄의 심각성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슬픔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모두 성전 앞 광장에 앉아  
“그 일(“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범죄”한 것)의 심각성”과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에스라10:9-10,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저는 저의 죄의 심각성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슬픔니다.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9:23, 현대인의 성경).

진실을 거짓말로 여깁니다!

나에 대해서 좋게만 말하는 거짓말 듣는 것에 익숙해진 귀는 진실을 거짓말로 여깁니다  
(참고: 역대하 18:12, 15, 현대인의 성경).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 명?

우리에게 “좋은 일”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비록 우리가 듣기엔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 명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참고: 역대하 18:7, 10-11, 15, 17, 현대인의 성경).

##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 책망을 받은 후로는

그가 사랑하고 도왔던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아합 왕을 만나서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역대하 19:2-4,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 왕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사무엘하11:4, 현대인의 성경)

그녀가 임신했을 때 자기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

그녀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다가 안되서

결국 우리를 의도적으로 죽이는(6-25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후(27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했을 때(12:1-12)

다윗은 회개하므로(13절) 나중에 나이가 많아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을 때

그의 신하들이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수뽕 여자 아비삭을 찾아 그녀로 하여금 다윗 왕을 시종을 들게 했을 때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열왕기상 1:1-4).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13:22, 개역한글).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할 때 여호사밧 왕은 완전한 왕이 결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종인 선견자 예후를 통해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 왕처럼 회개를 하므로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련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고 있습니다(잠언 26:11).

“아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7:24-25, 현대인의 성경).

##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일)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참고: 역대하 34:31, 현대인의 성경).

## 짐을 가볍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자들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지  
더 무겁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참고: 역대하 10:9-11, 현대인의 성경).

## "찬송의 골짜기" [The Valley of Beracah (The Valley of Blessings)]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기적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일에서 구출해 주시므로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 모두의 "아골 골짜기"[괴로움의 골짜기(The Valley of Trouble)]를  
"찬송의 골짜기"[The Valley of Beracah(The Valley of Blessings)]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하 20:22-27; 여호수아 15:7, 현대인의 성경).

## 참으로 의로우신 주님은 ...

참으로 의로우신 주님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키십니다!  
(참고: 느헤미야 9:8, 현대인의 성경).

## 충동 혹은 감동?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였지만(역대상 2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 각 집안별로 등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7:5,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고 싶을 때 ...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고 싶을 때[의미: “일단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인터넷)]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네 손을 거두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21:15, 현대인의 성경).

## 큰 어려움을 접했을 때

우리가 큰 어려움을 접했을 때(시편 86: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역대하33:12) 하나님을 찾으므로(15:14)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베소서 2:4, 현대인의 성경)과

크신 은혜(시편 145:7)를 경험합니다.

##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은 정예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북쪽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었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함 왕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1: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뜻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11:11-13).

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조건 연합하여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범죄의 결과로 둘로 나뉘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를 회상하십시오.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도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20:7; 요한복음 15:13,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므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역대하 20:20-21,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보초를 세워 ...

사탄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보초를 세워 밤낮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참고: 느헤미야 4:8-9,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십시오.

엄청난 대군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예돔에서 와서  
이미 하사손-다말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습니다(역대하 20:1-3, 현대인의 성경).  
어제 월요일 오후에 사랑하는 대학교 후배 형제와 Zoom으로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그 형제와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눈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기로 결심하자고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갑자기 접하게 될 때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하고(다니엘 10:12, 현대인의 성경)  
또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역대하20: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교만한 지도자의 세력을 꺾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이어 유다 왕이 된 그의 장남 여호람은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동생들 여섯 명을 모두 죽이고 또 몇몇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역대하 21:1-6, 현대인의 성경).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도 왕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을 버렸으며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12:1, 현대인의 성경).  
웃시야 왕도 자기 세력이 막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26:16, 현대인의 성경).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력을 굳히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잔인한 지도자의 세력을 꺾어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힘을 없애 버리시고  
그의 희생자들을 구출해 내주시길 기원합니다(욥기29:17; 에스겔30:18,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 (1)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않습니다

(참고: 역대하 36:12,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 (2)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고: 역대하 36: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내용을 읽은 에스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황제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내가 황제와 그에 자문관들과 권력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에스라 7:27-2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마가복음 8:35)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축복해 주셨으므로  
페르시아 황제는 그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셔서  
그가 바벨론 1월 1일에 떠나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 7:6-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사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되  
모든 우상을 없애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참고: 역대하 14:1-5).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에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 에스라 5:5,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지지(support)하는 사람도 있지만 ...

비록 아닥사스다 황제는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부탁한 것을 다 들어주었으므로

느헤미야가 황제가 보내 준 몇몇 군 지휘관들과 기병대와 함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 곳 총독들에게 황제가 써 준 공문을 주었”지만

그 지방의 호른 사람 산발랏과 정부 관리가 된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의 복지를 위해 일한 사람”(느헤미야)이 온 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격분”하였습니다(느헤미야 2:8-1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지지(support)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쫓아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라 10:2-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저의 범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저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곳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도 느헤미야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때까지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그 밖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느헤미야 2:11-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게 하신 주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로 하여금 하게 하신 주님의 일을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은 주님의 종들을 감동시켜주시사 ...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게 하신 일을 침묵하다가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과  
황제가 나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2:12, 16-1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은 주님의 종들을 감동시켜주시사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재건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소수의 교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충분히 와해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소수의 병력”에 불과한 시리아(아람) 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린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얻게 하시므로  
요아스 왕을 심판하셨습니다(역대하 22:24, 현대인의 성경).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와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그 공동체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소수의 교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충분히 와해시키실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황제에게 대답을 했을 때  
그 황제는 느헤미야의 “요구를 궤히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다시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느헤미야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 2:4-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을 뿐인 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에베소서 2:20,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에 비해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아 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에스라 9:13-1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에 비해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충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과 후렴 가사가 생각납니다:

(1절)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후렴)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바빌론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들을 샅샅이 찾아보게 한 결과

메디아도의 엑바타나 성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되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키루스 황제의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황제가 내린 명령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것과 성전 재건 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은

황실에서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닷드내와

그리고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장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있던 곳에 재건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 성전 공사를 돕고

그 모든 비용을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  
만일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하는 왕이나 민족이 있으면  
그 곳을 경배받으실 곳으로 택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를 원한다.  
나 다리우스 황제가 이것을 명령하였으니 너희는 속히 이 명령을 수행하여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을 돕도록 하셨으므로  
그 땅에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에스라 6:1-12, 2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권력자의 마음도 변화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려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는 것과  
“너희 중 그(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라”입니다.  
이러한 조서를 내리면서 키루스 황제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에스라 1: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하심에 있어서  
심지어 한 나라의 불신자 왕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 20년 전에 한국에서 살던 저에게 교회갱신 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마태복음 16장 18절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  
(I will build My church)란 약속의 말씀을 주시사 저로 하여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까지 승리장로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저는 불성실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승리장로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참고: 디모데후서 2:13,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때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내시인 해개는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날씬한 아름다운 처녀인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녀에게 호의(은혜)를 베풀어 “즉시 그녀에게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주었으며 황궁에서 뽑은 일곱 궁녀를 그녀에게 주어 시종들게 하고 그들을 가장 좋은 별궁으로 옮겼”습니다 (에스더 2: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와스디 왕후 대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심에 있어서 내시인 해개로 하여금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하시사 그녀에게 호의(은혜)를 베풀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때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불순종과 불화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와스디 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지 않았던 아하수어로 왕은 자신이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여 왕후로 삼은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대신들과 신하들을 초대하고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으며 각 도에 왕의 하사품까지 보냈습니다 (에스더 2:17-1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하수어로 왕은 와스디 왕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해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기 큰 잔치까지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어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안 좋은 부부 관계도 사용하시사 에스더로 하여금 와스디 대신 왕후가 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불순종과 불화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일)를 믿음의 눈으로 목격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일제히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하 5:13,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라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제사장들과 아삽 집안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모든 유다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은 기쁨때문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에스라 3:10-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고린도후서 6:16)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11,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라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와 인연을 맺어서는 아니 됩니다.

선견자 예후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책망했습니다(역대하 19:2).

여기서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가리킵니다.

왜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을 사랑하고 도왔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역대하 18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는 혼인으로 아합의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

즉,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아합 왕을 사랑하고 도운 이유는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혼인으로 아합 왕의 집안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아합 왕의 집안과 인연을 맺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한 이유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때 특히 조심하여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와 인연을 맺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조심하지 못하여 그런 자와 인연을 맺었다면 속히 끊어야 합니다.

속히 끊지 못한다면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어서라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로보함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을 파면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만든 수영소와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고 산당에서 섬김 제사장들을 제멋대로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유로이 제사를 드리기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며 이것은 유다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1:16-17, 현대인의 성경).

만일 노회가 목사님들을 제멋대로 세우고 교회에 직분자들을 제멋대로 임명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까지 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으면 ...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역대하 12: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영원히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7:16,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성전에서 숭배받는 목사들?

어떻게 느낀세 왕은 하나님께서 “경배 받을 곳으로 택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세워놓을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33: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도 느낀세 왕과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경배 받을 곳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여 성도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세상 사람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참고: 역대하 36:14,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3:17)

##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베풀어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 역대하 20:22, 24,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에 겸손히, 묵묵히, 끝까지 동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위협하며  
또한 유다 백성들이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6: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의 원수들은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협하려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교회를 공격하여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할 때 강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에 겸손히, 묵묵히, 끝까지 동참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가 어느 날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어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말을 아하수어로 왕에게 보고하였고 아하수어로 왕은 일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보고가 사실임을 알고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하수어로 왕이 보는 데서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 2:21-23,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아하수어로 왕은 그 당시에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개에게 아무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6:3,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였” 습니다(3: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왜 아하수어로 왕은 자기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사실을 고발한 모르드개에게 아무 상을 그 때에 주지 않고 나중에 에스더 6장에 가서 줬을까 생각할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아하수어로 왕은 모르드개가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한 사실을 고발했을 때 그 일의 진상을 조사하며 그 보고가 사실임을 확인했으면 바로 그 때 왕은 모르드개에게 상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모르드개를 처형시키고자

약 23미터 높이의 교수대(나무)를 세웠을 때(5:14, 현대인의 성경)

“그 날 밤에” 아후수어로 왕으로 하여금 궁중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르드개가 고발한 사실을 알게 하시사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 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6:1-11, 현대인의 성경).

이 사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때는 모르드개가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2) 아하수어로 왕이 모르드개가 왕후 에스더를 통해 자신에게 고발한 일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고발한 내용이 사실임을 먼저 확인한 후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고발(보고한) 일의 진상을 먼저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들이 많은 세상에 모든 말들이 사실인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짓말과 모함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서 만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3) 아하수어로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한 사실을 모르드개가 고발한 내용을

아하수어로 왕이 보는 데서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글로나마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가정 일기를 쓰고 있는 것과 사역 일기를 쓰는 것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록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그 말씀 묵상 글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 놓는 것(post)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말씀에 관한 말씀 묵상 글들을 검색하다 보면

전에 쓴(기록한) 말씀 묵상 글들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4) 왜 아하수어로 왕은 모르드개가 자기를 살해하려는 모의를 보고(고발)를 한 후에

진상 조사를 하여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킨 후에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했을까요?

왜 아하수어로 왕은 아무 이유 없이(적어도 성경 에스더 3장에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하만의 지위를 높인 것일까요? 오히려 그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개의 지위를 높였어야 하지 않았나요?

아하수어로 왕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개를 하나님의 때에 높이셨고(6장)

교만한 하만은 낮추시되(참고: 사무엘하 22:28; 시편 18:27; 이사야 2:12, 26:5;

다니엘4:37, 현대인의 성경) 아후수어로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개를 처형하려고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케 하였습니다(7:9-10,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종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인 도비야와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위협하려고 심지어 스마야 선지자도 뇌물을 줘서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 느헤미야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를 비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 6:10-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전도서 7:7, 현대인의 성경)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눈까지도 멀게 하여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켜 (출애굽기 23:8, 새 번역; 신명기 16:19) 결국에는 그릇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36:18).

##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고: 에스라 10:11-12, 현대인의 성경)

## "한없이", "억지로", "자유롭게"

크셀크세스 황제(아하수에로 왕)은 꼬박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잔치에서 황제는 부강한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한 후에 다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일반 백성을 위해 궁전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황실의 술을 “한없이” 내놓아 모든 사람에게 모양이 각기 다른 금 술잔으로 마시게 했으며 황실 관리에게 명령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더 1:4-8,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3 단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 “한없이”:

- (a)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던 것처럼(열왕기상4:29, 새 번역)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솔로몬에게 한없이 많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 (b) 우리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습니다(요한복음 1:16, 현대인의 성경).
- (c) 주님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시편86:5, 현대인의 성경).
- (d) 우리는 교만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처럼 술이나 재물 등의 노예가 되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없이” 욕심을 부리며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2:5, 현대인의 성경).
- (e)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길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14:72, 현대인의 성경).

(2) “억지로”:

- (a)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41).
- (b) 저 같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나 치리하시는 장로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되 “억지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2, 현대인의 성경).

(c) 우리는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9:7, 현대인의 성경).

(d) 우리는 겉치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 자녀를 “억지로”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갈라디아서 6:12, 현대인의 성경).

(e) 우리는 자기 식구나 교회 식구들에 돈을 빌려준 후

그 빚을 “억지로” 받으려고 독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신명기 15:2, 현대인의 성경).

(f) 우리는 무식하고 믿음이 약하여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지 말아야 합니다(참고: 베드로후서3:16, 현대인의 성경).

(3) “자유롭게”:

(a)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이사야60:16, 현대인의 성경).

(b)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지금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들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요한복음 8:36; 갈라디아서5:1).

(c)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요한복음8:32, 현대인의 성경).

(d)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야고보서1:25).

(e)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따르면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시편119:45).

(f)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시편118:5, 현대인의 성경).

(g) 주님께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캄캄한 감옥 같은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사 “자유롭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이사야42:7, 현대인의 성경).

(h) 이제 막 결혼한 신랑은 시댁 식구나 특별한 임무 등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1년 동안 자기 신혼 집(시댁 집 말고)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참고: 신명기 24:5, 현대인의 성경).

##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장로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참고: 역대하 7:10, 현대인의 성경).

## 회개의 통곡 기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고: 역대하 34:2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제 평생에 이러한 회개의 통곡 기도를 딱 한 번 드려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이러한 회개의 통곡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 회개하는 주님의 종의 곁으로 모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와 같은 회개하는 주님의 종의 곁으로 모여드립니다  
(참고: 에스라 9:4, 현대인의 성경).